

후 미주신경의 복강지 보존 위아절제술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¹내과학교실

이상호, 김지연¹, 박선자¹

(배경 및 목적) 위암의 근치적 치료를 위해선 림프절 광청술을 하여야만 한다. 조기위암이라도 수술전 림프절 전이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D2가 표준 술식이다. 그러나, D2를 시행시 필연적으로 위를 지배하는 미주신경을 절단하여야 하므로 수술 후 덤핑증후군, 배변습관변화, 체중감소, 역류성 식도염 등의 합병증이 뒤따른다. 수술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미주신경 보존술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술식 중의 하나이며 최근 이러한 술식을 시행한 8예를 경험하였기에 술식의 방법과 유용성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3월 부터 2004년 10월까지 8명의 환자(남자 5명, 여자 3명)에서 후 미주신경 복강지를 보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술식은 복강지를 보존하기 위해 No 8 림프절 광청시 celiac plexus를 보존하며 좌위동맥 결찰시 미주신경 celiac branch를 보존하고, 후미주신경의 복강지를 확인하며 박리한다. 수술후 경과는 체중 변화, 배변습관 변화, 덤핑증후군, 수술후 gas out시간을 조사 하였다.

(결과) 최근 수술을 시행한 2례를 제외한 6명에서 배변습관 변화, 덤핑증후군의 합병증은 없었다. 체중변화는 최근 시행한 2례를 제외한 6명의 환자중 50%(3/6)에서 수술전과 동일했으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없었고, 수술후 gas out시간은 2~4일 이었으며, 1예에서 수술 후 시행한 식도 manometry 검사상 정상 이었다.

(결론) 위암의 술식으로 근치성을 유지하고 술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후 미주신경의 복강지 보존술은 위 아전절제술시 안전하고 유용한 술식이라 하겠다.